

의료선교의 달에 나누는

# 두번째 이야기

## 사람이 있었어요

### 선교사와 함께하는 채플 (2)

- 김정은 선교사 (케냐)
- 11월 11일 (수) 오전 8시
- 온라인 (접속은 원목실 원내메일 참조)

### 세브란스 기독교인의 날

- 동문선교사와 나누는 삶과 사역 이야기
- 11월 18일 (수) 오후8시
  - ✦ COVID-19를 묻고 답하다.
- 11월 25일 (수) 오후8시
  - ✦ COVID-19 시대의 사역
- 온라인 (접속문의: 의료선교센터)

### 소망가운데 ( )하며

- 이번 의료선교의 달 주제입니다.
- 괄호를 채워주세요!
- 단어, 문구, 이야기 모두 좋습니다.
- 제출: [mmcenter@yuhs.ac](mailto:mmcenter@yuhs.ac)
- 제출 마감: 11월 30일

### Mission Talk

- 함께 나누는 선교 이야기
- 11월 28일 오후 7시
- 온라인 (접속문의: 의료선교센터)



#### 범상치 않은 질문

“세브란스가 그동안 지켜온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엇입니까?  
그리고, 그것을 어떻게 후학들에게 전해 주십니까?”

2019년에 우리 병원에 실습 온 케냐 나이로비외대 학생들의 질문입니다. 세브란스병원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질문은 대부분 “어떻게 130년동안 이런 큰 발전을 했나요?”입니다. 이 학생들의 범상치 않은 질문에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하였습니다.



#### 사람이 있었어요

“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.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세브란스의 모습입니다. 1885년 부터 65년 동안 가꾸어 놓은 멋진 캠퍼스는 모두 폐허

가 되어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. 그런데 둘러보니 우리에게 사람이 있었습니다. 에비슨 선교사님 등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세워 놓은 한국 의료인들이 있었고, 한 식구 같은 파트너들도 있었습니다. 서양의 선교 기관, 미8군, United Board, China Medical Board 등 수많은 파트너들이 도와주었습니다. 그래서 더 좋은 캠퍼스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.

세브란스의 가치는 사람입니다. 사람을 세우는 일과 파트너십을 맺는 일을 초창기부터 가장 소중한 소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. 이 가치는 해외의 동역자들에게도 전하고 있습니다.”

#### 사람을 세우고자 합니다

의료원은 의료선교사업을 통해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, 사람을 세우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. 사람의 눈에 잘 띄는 일은 아니지만,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 잘 세워지기를 바라게 됩니다.